

광주 경제 효자 車산업 '관세 폭탄' 맨 파장 심각

한은 광주전남본부 '광주 자동차산업 특징' 분석

생산액 14조1760억...제조업 생산액의 44.6%

수출액 비중도 40.7%...관련 종사자 19% 달해

美로 수출만 50%...신흥 시장 개척 등 다변화 절실

'제조업 생산액의 44.6%, 제조업 부가가치액의 42.4%, 자동차산업 수출액의 40.7%, 지역 내 종사자의 19.0%...' 자동차산업이 광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통계 수치다.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 관세 부과 조치를 실행할 경우 지역경제에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13일 '광주·울산지역 자동차산업 특징 및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지역경제상황을 분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고서는 자동차 산업이 광주지역 생산·수출·고용 등에 얼마나 기여도가 높은 주력산업 인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광주 자동차산업 생산액은 14조 1760억원(2016년 기준)으로 지역 제조업 생산액의 44.6%를 차지한다. 부가가치액도 4조2220억원에 달해 광주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10조)의 42.4%에 이른다.

광주 자동차산업 수출액도 60억8900만 달러(2017년 기준)로 지역 전체 수출액(150억달러)의 40.7%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자동차산업은 지난 2005년 이후 광주지역 최대 수출 품목으로 도약했다고 분석했다.

관련 종사자들도 많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자동차산업 사업체는 335개(지역 제조업의 3.9%)에 달하고 관련 종사자도 1만6000명(/ 19.0%)에 이른다. 관세 폭탄이 실행될 경우 자칫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특히 광주지역 자동차 수출 물량은 미국에 집중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 시장을 개척하는 등 다변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캐나다·멕시코는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완성차 수출 상위 3개국으로 이들 국가에 수출하는 물량이 광주지역 전체 자동차 수출 물량의 63.9%에 달할 정도다.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50.1%로 가장 높고 멕시코 7.1%, 캐나다 6.7% 등이다. 이들 3개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은 전국 평균 40.6%, 울산 55.2%보다 크게 높아 의존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지역 1차 자동차 부품업체 중 74.1%(2016년 기준)가 기아차에 납품하는 등 부품업체의 완성차업체에 대한 의

존도도 높아 관세 폭탄에 따른 피해가 중소협력업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국가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등지에서 꾸준한 판매를 유지하고 인도, 브라질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또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업체 매출액 대비 0.6%(249억·2016년 기준)인 연구개발비를 확대, 투자를 늘리고 자율주행 등 스마트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기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자동차 좌석마다 다른 음악 청취 가능

현대·기아차 1~2년내 상용화

한 자동차에서 탑승자마다 다른 음악을 듣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이어폰 없이도 7080 음악을 좋아하는 부모와 아이들 음악을 듣는 자녀들이 간섭 없이 들을 수 있다는 얘기도.

13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차세대 음향 기술인 '독립음장 제어 시스템'(SSZ- Separated Sound Zone)을 개발, 기술 설명자료를 유튜브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독립음장 제어 시스템은 운전석, 보조석, 뒷좌석 등 차량 내 각 공간에서 독립된 음향을 들을 수 있도록 음장을 형성·제어하는 기술이다.

차량에 내장된 여러개의 스피커가 동시에 다른 음향을 낼 때 나오는 소리의 파장을 서로 상쇄시키거나 증폭시키는 원리를 이용해 좌석별로 원하는 소리가 재생되도록 하는 것이다.

각 좌석에서 다른 음악을 틀어도 음이 중첩해 들리는 간섭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마치 방음시설을 구비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 타면 헤드폰이나 이어폰 없이도 좌석마다 다른 라디오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음악을 들으면서 대화도 가능해 탑승자 간 단절이 일어나지 않고 내비게이션 길 안내 음성도 운전자만 듣는 게 가능하다. 또 각자 자리에서 통화를 해도 동승자에게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4년부터 독립음장 제어 시스템 관련 연구를 시작, 최근 시험을 완료했으며 이르면 1~2년 이내에 양산차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디젤차 지고 친환경차 뜬다



디젤차
상반기 등록 4.4% 감소
"연쇄 화재 등 대형 악재"
가솔린차에 점유율 뒤질 것"
완성차업체 모델 생산 중단

친환경차
상반기 5만3625대 팔려
전년비 30.9% 급등
기아 '니로' 등 판매 박차



기아차 '니로 EV'(왼쪽)와 한국 GM '볼트 EV'.

하지만 친환경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디젤차 판매도 예년에 비해 감소했고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

국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차 비중은 52.5%(2015년)→47.9%(2016년)→45.8%(2017년 상반기)→45.2%(2018년 상반기) 등으로 낮아졌다.

수입차도 비슷하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내놓은 "7월 국내 수입차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49.3%(6만6982대)에 달했던 디젤차 점유율은 올 상반기 46.3%(7만 4327대)로 낮아졌다. 반면, 지난해 상반기 41.3%(5만6143대)이던 가솔린차 점유율은 올해 상반기에는 44.9%(7만2055대)로 높아졌다.

디젤 수입 차량은 지난 2012년부터 높은 연비에 엄격한 환경규제까지 충족한데다, '클린 디젤'이라는 친환경적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인기가 치솟았다. 하지만 2015년 말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인기

가 급락했고 최근 전기차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커지면서 디젤차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연쇄 화재란 대형 악재가 터진 만큼 연간 디젤차 점유율이 처음으로 가솔린차에 뒤질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국내 완성차업체에서도 디젤 모델 생산을 중단하고 가솔린 모델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 전략을 수정하는 중이다.

현대차는 그랜저와 쏘나타, i30, 맥스쿠 루즈 등 4개 차종의 디젤 모델 생산을 중단하고 재고 불량만 판매하기로 했다. 'SUV=디젤차'라는 공식에서 벗어난 가솔린 모델 출시와 판매도 잇따르고 있다.

◇도약하는 친환경차=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급성장하는 추세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전기차(EV), 수소전기차(FCEV) 등 친환경차는 국내에서 5

만3625대가 팔려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30.9%가 급증했다.

하이브리드차량은 4만1287대가 팔려 지난해 상반기보다 13.5%가 늘었고 전기차는 1만1866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168.6%가 뛰었다. 수출량도 전기차 모델의 경우 올 상반기 1만1682대가 수출돼 전년 동기 대비 47.3% 늘었다.

차종별로 보면 니로 PHEV는 올 상반기 166대가 팔려 지난해 상반기보다 374.3%가 늘었고 쏘울 EV도 올 상반기 1042대가 판매되면서 전년도 같은 기간(542대)에 견줘 92.3%가 증가했다는 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발표다.

볼트 EV는 한국GM이 국내 완성차 업체 중 내수 판매 팔찌를 기록하는 등 힘든 상황에서도 6월 1621대가 팔려 1년 전(39대)보다 4056.4%가 뛰었다. 7월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1485.5%가 늘었다. 올들어 7월까지 판매된 차량도 3994대로 전년도 같은 기간(335대)에 견줘 1092.2%가 급

증하는 등 전기차 인기를 이끌고 있다.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과 세금 감면 규모 확대 등에 힘입어 올해 최초로 1만대가 넘는 차량이 신규 등록됐다.

수소연료전기차도 현대차의 연료전지차 전용모델 넥쏘가 인기를 끌면서 올 상반기까지 196대가 팔렸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무려 402.6%가 늘었다는 게 산자부 발표다.

국내완성차 업계도 친환경차 모델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코나'의 전기차 모델 '코나 일렉트릭'을 출시했고 기아차도 니로 전기차(EV) 모델을 출시, 판매에 들어갔다. 니로 EV는 1회 완전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 385km(64kWh 배터리 기준)를 인정받았다.

글로벌 완성차업체에서도 디젤차를 떠나 친환경차로 이동한 지 오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BMW 중고시장 유통 차단

정부가 리콜 대상인 BMW 차량의 중고 시장 유통 차단에 나섰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도록 차량 구매자에게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에서 리콜 대상 BMW 차량이 매매되는 등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토부는 또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욕각형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에이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